

광주FC 엄지성 해외진출 '쇼케이스' 시작됐다



광주FC 엄지성이 지난 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4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골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광주FC 제공**

도하컵 U-22 오만전 선발 출전 좌측면 미드필더서 1골 1도움 한국 3-0 승... 26일 이라크전

유럽 리그 진출을 꿈꾸는 '한국 축구의 미래' 광주FC 엄지성(21)의 쇼케이스가 시작됐다. '도하컵 U-22 친선대회'에 출전한 엄지성은 첫 경기부터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 승리의 선봉에 서며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다.

엄지성은 23일(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 알 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하컵 U-22 친선대회 1차전 오만과의 경기에서 1골 1어시스트로 맹활약하며 한국 올림픽대표팀의 3-0 완승을 이끌었다.

엄지성은 이날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76분 동안 활발한 움직임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해결사 역할을 맡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엄지성은 전반 터진 한국의 두 골에 모두 관여했다. 전반 5분 좌측 페널티박스 인근에서 오른쪽 감아차기 슈팅으로 영점 조정을 마친 엄지성은 전반 8분 만에 선제 골을 터뜨렸다. 이태석이 올린 코너킥을

문전에서 뛰어 올라 방향만 바꾸는 헤더로 오만의 골망을 갈랐다.

전반 33분에는 한국의 두 번째 골에 도움을 줬다. 엄지성은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박스 중앙의 빈 공간에 땅볼 패스를 찰러넣었고, 김신진이 오른쪽 터닝슛으로 마무리했다.

엄지성은 이후에도 적극적인 공간 침투로 추가골까지 노렸으나 오만 수비수들의 거친 반칙과 함께 집중 경계를 당하면서 실패하고 후반 31분 홍시후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

엄지성은 2024 파리올림픽을 대비한 도하컵 U-22 친선대회 첫 경기부터 뛰어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해외 진출 쇼케이스 무대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엄지성에게는 2023년은 중요한 해다. 올해 K리그1에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야만 꿈꾸는 유럽 무대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지난해 K리그2에서 28경기 9골 1어시스트로 팀 우승에 기여해 영플레이어상에 베스트11(미드필더)까지 휩쓸었지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엄지성은 올시즌 K리그1 개막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팀을 승격해서 좋았지

만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많이 출전하지 못했고 부족했던 모습이 보여 아쉬웠다"며 "내 자신을 믿는다. 작년보다 더 좋은 팀과 선수들을 상대하면서 내가 경쟁력 있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또 "올해는 K리그1에서 영플레이어상과 베스트11을 받겠다. 또 올해 한자우아시아게임 출전도 놓치지 않겠다. 월드컵을 보면서 뛰고 싶다는 생각과 내가 현장에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2023 도하컵 U-22 친선대회 출전에 대한 각오도 남달랐다. 그는 지난 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과의 경기를 마친 뒤 가진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여서 책임감도 들지만 재미있게 하고 오겠다"며 "광장히 설레고, 하던 플레이와 잘하는 플레이를 잘 수행하고 돌아오겠다. '엄지성'이라는 선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은 이날 엄지성과 김신진의 연속골과 후반 31분 안재준의 썩기골까지 터지며 3-0 완승을 거뒀다. 2차전은 오는 26일 오전 2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열린다. **한규민 기자**

클린스만호, 오늘 데뷔전

울산서 콜롬비아와 친선경기

클린스만호가 울산에서 데뷔전을 통해 출항을 알린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은 24일 오후 8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이번 대표팀 첫 소집 명단은 카타르월드컵 16강 멤버가 주축을 이뤘다.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나폴리) 등 해외파가 변함없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월드컵 예비 멤버로 카타르에 동행했던 공격수 오현규(셀틱)와 K리그1의 베테랑 측면 수비수 이기제(수원)가 합류해 총 25명의 선수단이 구성됐다.

전임 벤투호 체제를 유지하면서 차츰 차츰 자신만의 축구 색깔을 입혀가겠다고



클린스만(왼쪽) 축구대표팀 감독과 손흥민이 23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밝힌 클린스만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1-0'보다 '4-3'을 선호한다며 '타공(타치고 공격)'을 선언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콜롬비아와 데뷔전을 치른 뒤 28일에는 장소를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옮겨 우루과이와 붙는다.

그가 이번 2연전을 통해 한국 축구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관심이이다. **뉴시스**

광주·전남 고교야구 6팀, 올 첫 전국대회 참가

신세계야마트배 오늘 개막

광주·전남 고교야구 6개팀이 올해 첫 전국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노린다.

23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따르면 '2023 신세계야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24일 경주베이스볼파크에서 개막한다.

당초 23일 개막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순연돼 24일부터 1회전 경기가 시작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올해 19세 이하 부에 등록된 전국 고교 팀이 모두 참가하는 대회로 역대 최다인 93개 팀이 참가했다.

대회 32강전까지는 경주베이스볼파크 1,2구장에서 열리며 16강전부터 4강전까지는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진행된다. 4월

10일 열리는 결승전은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 일고, 광주 동성고, 광주 진흥고, 순천효천고BC, 나주 광남고, 화순고 등 총 6팀이 출전한다.

광남고는 25일 오후 2시30분 인천고와 1회전 경기에 나선다. 화순고는 26일 오전 9시30분 경기항공고와 1회전 시합을 갖는다. 광주일고는 27일 오후 2시30분 경주고와 1회전에서 맞붙는다.

광주 동성고와 순천효천고BC, 광주 진흥고는 2회전으로 대회를 시작한다. 동성고는 28일 오전 9시30분 부경고-남양주금곡BC 승자와 만난다. 순천효천고BC는 28일 오후 2시30분 중앙고와 맞붙는다. 광주 진흥고는 30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와 상대한다. **최동환 기자**



이해인, 피겨 세계선수권 2위

이해인이 22일 일본 사이타마의 슈퍼아레나에서 열린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해 연기하고 있다. 이해인은 기술 점수(TES) 39.51점, 예술점수(PCS) 34.11점 합계 73.62점으로 개인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AP/뉴시스**

'영암 출신' 유해란, LPGA 투어 데뷔전 나선다

드라이브온 챔피언십 출전

'영암 금정' 출신 프로골퍼 유해란(22·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전에 나선다.

유해란은 24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애리조나주 골드캐니언의 슈퍼스티션 마운틴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총상금 175만 달러·우승상금 26만2500달러)에 출전한다.

지난해 12월 LPGA 켈리파이프 시리즈를 1위로 통과한 유해란은 이번 대회를 통해 LPGA 투어 데뷔전을 치른다.

2020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신인왕인 유해란은 한국 무대에서 통산 5승을 올렸다.

2016·2020·2022년 US오픈과 2018년 LA 오픈, 에비앙 챔피언십, 2021년 국내에서 열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등 미국 대회 출전 경력이 있지만 투어 신인 자격을 얻은 뒤로는 이번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이 첫 경기다.

유해란은 LPGA 무대에서 침체된 한국 여자 골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선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해란은 LPGA를 통해 "첫 대회가 3월23일(현지시간) 열린데 공교롭게도

내 생일이다. 첫날 많은 의미가 담긴 대회가 될 것 같아서 좋은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첫 대회 출전 각오를 밝혔다.

유해란은 전지훈련을 통해 비거리를 늘리고, 어프로치 샷을 집중 연습했다.

그는 "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거리를 늘리려고 많이 노력했다"며 "그린 주변 어프로치도 많이 했다.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조금 더 연습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잘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